

## “깨달음 논쟁, 종단 차원에서 논의하자”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깨달음은 무엇인가’ 논쟁이 한 달여 가 지난 현재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논쟁이 종단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불교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깨달음 논쟁’이 종단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범용 스님이다. <기고문 전문 27면>

범용 스님은 기고문을 통해 논쟁을 처음 제기한 조계종 교육원장 현웅 스님과 공식적 반론을 내놓은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공식적인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용 스님은 “범을 논하는 자리보다 더 자비롭고 자색광명이 방광하는 자리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조계종 총무원이나 교육원이 주최하고 여러 기관·단체의 협찬 속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에서 토론이 이뤄진다면 여법성이 구축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시간을 끌거나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웅·수불 스님에게도 “매순간 삶의 고통이 연속인 우리 사회와, 크나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방향을 잃어버린 한국 불교 전반에 무엇이 지혜와 자비의 완성 이르는 길인지, 결출한 두 스님이 대화해서 대중들의 갈증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깨달음 논쟁’이 종단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재가수행자들도 높은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제열 유마선원장은 “현웅·수불 스님의 개인 대 개인 논쟁은 무의하다. 종단 차원에서 한국불교 법성의 정통성·정체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스님의 논쟁에 여러 학자들이 가세하면서 본래 논의 초점에서 다른 교리 논쟁으로 결가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조기불교와 대승불교의 깨달음 무엇인지, 깨달음은 이해인지 증득인지 확실한 토론 주제와 목표를 정하고 한국불교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을 요구한 한 재가 수행자는 수행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실제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그는 “만약 어느 단체가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어도 토론이 학술적 측면에서 다뤄질 개연성이 크다”면서 “오는 2월 22일 동안거 해제 후 수좌 스님들이 본격적인 논쟁에 참여해 종단적인 공론의 장이 펼쳐졌으면 한다. 진정한 수행자들이 이야기하는 깨달음을 사부대중은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무원 등 종단과는 별개로 불교 지식인들도 ‘깨달음 논쟁’에 대한 지속적 논의의 장을 준비 중이다. 올해 성도제일을 맞아 지난 1월 15일 관련 논쟁 세미나를 제일 처음 열었던 정의평화불교연대는 2월 중순부터 회의를 거쳐 2차 세미나 준비에 들어간다. 발제자와 토

### 현웅·수불 스님 촉발 논쟁 종단서 논의 목소리 높아

### 초점 벗어난 교리 논쟁 안돼 韓 불교 정체성 논의가 필요

### “무엇이 지혜와 자비의 완성 이르는 길인지 의견 나뉘어”

### 학계 관심도 지속적으로 고조

론자 선정과 원고 청탁의 절차를 진행 후 3월 중순 경 2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계 유일 학술계간지인 <불교평론>도 올해 여름호의 특집으로 ‘깨달음’에 대해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정평불 대표·불교평론 편집위원장)는 “깨달음은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이고,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 화두를 던진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한다. 현웅 스님과 수불 스님이 나서서 깨달음의 논쟁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지식인들도 토론회와 연구 논문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비통함 잊고 고국으로 돌아오소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1월 30일 일본 아미구지현 우메시 조세이 단광 추모미 앞에서 ‘조선인 수몰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과 회정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등 한국불교계 대표들과 유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세이탄광의 흔적인 피아(배기구)가 보이는 해변에서 현화(화)식을 진행하고 추모광장으로 이동해 추모제를 개최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한국불교계가 수몰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1월 30일 일본 아미구지현 우메시 조세이 단광 추모미 앞에서 ‘조선인 수몰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과 회정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등 한국불교계 대표들과 유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세이탄광의 흔적인 피아(배기구)가 보이는 해변에서 현화(화)식을 진행하고 추모광장으로 이동해 추모제를 개최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한국불교계가 수몰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 “희망 주는 부처님 가르침 널리 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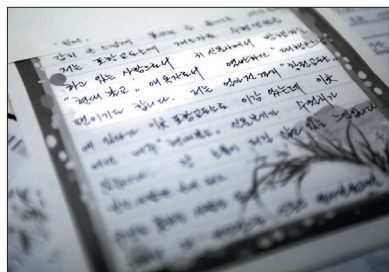
### 본지 창간독자 2000만원 기부 연재 읽으며 발심해 보시 결심

### 군대·교도소 등 법보시 사용기로 “더 열심히 佛法 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지요? 전 20여 년 동안 신문 구독한 창간 독자인데요, 신문사 계좌로 2000만원 보냅니다. 요즘 신문 포교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아는데 힘내시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 주는 부처님 가르침 많이 전하세요.”

1월 초 본지 독자관리부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부 의사를 밝힌 한 독자인 이었습니다. 이를 밝히길 한사코 꺼려한 독자는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된 글들을 읽으며 다시금 초발심이 생겨나 남편과 상의 끝에 신문사 발전을 위해 보시를 결심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불교 언론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해 달라. 구독자인 남편이름으로 계좌 이체했으니 확인해보라”고 용건만 전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뜻밖의 전화에 구독관리부 담당자는 보시 연유를 전화로 재차 물었지만



포항교도소 재소자 독자가 보낸 감사편지.

독자님은 더 이상 말을 아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부부는 그동안 본지가 펼친 법보시 운동에도 수차례나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본지 임원진은 기부자가 거주하는 부산으로 직접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소소하게 마음 썼을 뿐 일체 알리고 싶지 않다. 특히 남편이 무주상보시라는 원칙을 갖고 기부한 뜻을 존중해 달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의견을 존중기로 한 본지 간부들은 회의를 열고 기부금 용도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이 기부금을 올 1년 동안 교도소와 군부대 등 사회의 그늘진 곳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에 쓰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부자들은 원치 않았지만, 이

훈훈한 소식을 알 권리가 있는 독자님들과 공유키로 했습니다. 그래야 본지 임직원들의 책임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에서였습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새해 벽두 더욱 굳게 다짐합니다. 정론지필에 앞장서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비심이 충만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고귀한 뜻 잘 받들어 신문보시에 진력하겠습니다.

창간 이후 본지는 병원, 군부대, 교도소 등 사회의 손길이 덜 미치고 부처님 법음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합니다. 특히 전국 교도소에 보내는 법보시의 경우 많은 감사 편지가 답지합니다.

최근 포항교도소 재소자인 한 불자는 “수용생활 중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불교를 처음 알게 됐고, 발심해 현재는 매일 독경과 기도정진을 통해 지은 죄를 참회중이다. 법보시를 보내준 후원자분에게 감사하다”고 정성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부 선행으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에게 법보시 혜택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김주일 취재부장

##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 추진한다

### 3일 기자회견서 공식 주장 “군사정권 강제 수용”이유

“최근 매각된 한전부지는 군사정권 시절 정부청사를 명분으로 강제수용한 땅이기에 봉은사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조계종이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옛 한전부지의 환수에 나선다.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원명)는 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효력 없이 강제 수용된 한전 부지는 원 소유자인 봉은사 사부대중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9월 10조에 매입한 서울 삼성동의 한전 부지는 본래 봉은사가 갖고 있었으나, 1970년 당시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매입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토지 거래 당시 상공부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총무원을 압박했다”며 “거래 대상이 봉은사가 돼야 함에도 봉은사의 반대에 부딪히자 엉뚱하게 총무원으로부터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원원무효소송을 통해 당시 계약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명 스님은 특히 “수용 당시 상공부가 지정하는 포철, 한전, 광업진흥공사 등 10개 회사가 입주하는 정부청사 용도 명목이었지만 이후 한전만이 이전하고 개인에게 모두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봉은사는 이미 정부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된 2007년 수의매각을 요청했으나 한전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에 종단과 2015년부터 관련 자료검토 등을 진행해왔다.

환수위 대변인 김봉석 변호사는 “당시 계약상 봉은사가 매도인이었어야 함에도 조계종 총무원이 기재된 문제가 있다. 봉은사가 개별사찰이었기에 원원무효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목각 불**

**목각 천불전  
만불전 건립**

대 공덕을  
발원하시는 사찰  
연락 요망

**010-8617-5357**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해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칩니다!!

불조정맥 제78대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 각 권과 각 품마다 토끼뽕 자문자답으로 선미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습니다.

전자출판으로 1, 2, 3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보시고 과연 명안종사의 역저여서 만민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